社 說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 교과개편 이후 드러난 문제점

올해부터 적용된 교양과정개편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교양과정 개편은 학생들에게 전공의 부담을 줄이고 복수전공 및 부전공의 기회를 넓히며, 다양한 교양과목의 개설로 폭넓은 학문을 펼수 있게 한다는 의미에서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시행절차와 과정상에서 빚어지는 몇가지 문제점이 간과하고 넘어가기에는 범상치 않음에 우리는 주목하고자 한다.

첫번째, 학문의 다양성과 학생들의 보다 나은 학업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교양과정개편이 실효를 거두기 보다는 편법적 기능에 학생들이 더욱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학점에 있어서, 교양과목이라는 그 특수성으로 인해 전공보다 취득이 용이한 과목으로 학생들이 몰리고 있다. 전공에 비해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학업의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 어떤 학생은 심한 경우 필수를 제외하면 전공을 하나도 듣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몇몇 교양과목의 제목과 그 강의내용이 달라 수강학생들을 당황스럽게 한다는 데 있다. 교양과목이 다변화되고 다채로워진 것은 우선 반길 일이다. 그러나 예초 '강의계획서' 등으로 충분히 학생들에게 강의 내용을 소개하지 못한 탓으로 일반학생들에게 홍보효과를 주지 못하였고 강의를 맡은 담당강사들 역시, 그나마의 소개 내용과 현실적으로 상이한 수업을 하는 데서 비롯되기도 한다고 한다.

셋째, 강의시간표 준수의무와 관련한 교수들의 의식의 문제이다. 일단 시간표가 인쇄되어 나오면 그것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교수의 수업시간 변경은 연차적 수강신청 변경을 유발해 학기 평균 35% 이상의 수강신청정정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는 개강과 더불어 정상적인 수업진행을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행정력의 손실 및 학생들의 피해도 가히 엄청난 것이다.

이미 우리는 폐강과 강의실 배정문제, 강사선정문제 등으로 인해 수강신청시 2중, 3중으로 번거로운 수고로움을 겪었다. 이것은 교양과목의 다양합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학업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는 것에도 기인하지만 충분한 사전조사와 준비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다행히 이번에 '교양과정심의위원회'가 발족하여 활동에 들어간다고 한다. 이들은 이미 시행에 들어간 학점표준화 등과 더불어 교양과정이수에 있어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을 심의하고 그 해결방안을 내는데 노력을 할 것이라 한다. 학문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단순히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자의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선택되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것이 공정성과 형평성을 갖는 행위임을 바탕으로 학생들과 교수들 사이에 원할한 교육과정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시행착오를 겪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만은 아닌 것이다.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4·19는 끝나지 않았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현재도 진행중이다.

근자에 벌어지고 있는 몇가지 '사건'들은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을 두고 내려지는 평가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 지난 달 몇몇 신문사가 주관이 되어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이승만 재평가' 작업과 정부에 의해 성역화 되고 있는 수유리 4.19묘역은 각각 그 양 극단을 차지한다.

그간 학계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세미나와 학문적인 결과, 숱한 매체의 지면과 화면을 메워왔던 평가들, 그리고 아직도 수유리 묘역에 누워있는 희생자들의 시신이 채 다 썩기도 전에 벌어지고 있는 요즘의 논란은 무모하고도 소모적인 논쟁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하지만 한때 자신의 치부를 한사코 숨기려 고만 했던 사람들이 다시금 자신의 행위와 그 행위로 인해 벌어졌던 결과들을 정당화하는 모습은 당당하기까지 하다. 반대편에서 바라보는 우리로서는 솔직히 당혹감을 숨길 수 없다.

마군다나 이런식의 논쟁이 과거속에 기생해온 정치인이나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합리화 하는 것은 물론 구체적으로 김종필씨의 자민련과 같은 정치세력화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현실은 장차 드러날 그 부정적인 결과들이 걱정된다고 하겠다.

4.19는 우리의 현대사에 있어 사회의 건강성과 정치의 민주주의 정도를 가늠하는 바로메타의 구실을 해왔다. 4.19 정신의 건강성은 이후 유신정권과 80년이후 신군부 정권의 부도덕성과 비민주성에 맞서는 거대한 토대를 형성해 왔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일부에서나마 역사적인 평가의 정당성을 근본에서 뒤엎으려 하는 시도는 우리 삶의 기준들을 뿌리채 흔들고자 하는 발상이 아닐 수 없으며, 절차 보수화되어 가는 요즘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그 자체로 완결된다기 보다 이후에 전개되는 정치, 사회적인 상황에 의해 그 성과가 온전히 보존된다는 것에 유의해야만 한다. 4.19에 대한 자세도 마찬가지다. 가까운 예로 5.18의 광주가 이미 오래된 기억속의 것으로 인식되고 그 상처마저 치유되지 않은채 유야무야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4.19가 오래전의 사건으로 간단히 정리되는 것은 그것이 현재에도 유효하게 적용되는 바로메타의 성격을 간과하는 셈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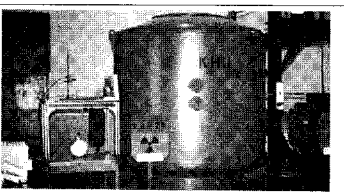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비록 30년도 더 오래된 사건일지라도 '4.19'는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4.19의 역사를 왜곡하고 은폐하고자 하는 세력이 존재하고 나아가 자신들이 직접 능동적인 세력화를 계획하는한 4.19는 결코 고색창연하게 역사책의 한 귀퉁이를 차지하는 죽은 지식이나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당시 권력의 최상을 차지했던 인물이 비록 지면으로나마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는 현실과, 당시 학생권의 지도부로서 민주투사를 자임했던 인사들이 오히려 권력의 핵심에서 그때의 건강성을 억누르는 모습으로 다가서는 현실, 무엇보다도 당시 고귀한 모습을 바쳐가면서까지 민주주의를 지켜내려 했던 대다수 민중의 눈길들이 여전히 존재하는한 4.19의 완결은 우리 앞에 놓여진 몫으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월요포커스 ⑦

수원캠퍼스

원자로



방사능피해등 사고위험 전혀없어

수원캠퍼스 공과대학관 A동옆에 작은 연못이 있고, 그 뒤로 2백여평 규모의 건물이 하나 있다. 이 건물은 일반대학생의 접근을 불허하며 수원캠퍼스 초기부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이 건물에 엄한 무성한 소문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이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납원티를 입고 다니느니, 가동중인 기계에서 나온 냉각수로 라면을 끓여 먹는다느니, 이 건물에서 나온 사람들이 용기종기 모여앉아 주변의 숲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네잎 클로바를 쉴새없이 딴다느니 하는 것들이다. 또한 이 건물에 설치된 어떤 기계가 터지는 날이면 수원 시내전체가 불바다를 이룬다는 소문도 있다.

그러나 이 건물은 바로 원자력공학과의 4학년 학생들이 실험용으로 사용하는 원자로가 있는 실험실습실이다. 매주 목요일이면 원자력 공학과 학생들이 실험을 위해 이곳에 모여든다

기자가 찾아간 목요일 오후 2시. 아날도 여지없이 실험을 위해 학생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나 소문과 관련한 납원티나, 라면을 끓이는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원자로 AGN-201(일명 KRR)만이 굳건이 돌아가고 있을 뿐이었다. 가동중인 AGN-201원자로는 교육용으로 핵연료는 20% 농축 우라늄(1년 사용량 1.52×110 $^{-6}$g/년)을 사용한다. 이 원자로에서 나오는 출력은 미미한 것으로 100mW(미리와트)이다.

그렇다면 이 원자로는 언제 어떻게 우리학교에 오게 되었는가?

현재 설치된 AGN-201의 역사는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학에서 부터 시작된다. 애초 이곳에서 사용하던 것을 1976년 3월 우리학교에서 기증받았다. 그후 82년 지금의 건물에 설치하여 그해 12월3일 처음 시동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 원자로는 교육용 원자로로 국내에서는 세번째(최초의 원자로는 1962년 트리가 마크 II, 두번째는 72년 트리가 마크 III이다)로 설치되었다.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최초이자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매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도 받는다.

그럼 소문처럼 납원티와 라면과 네잎 클로바는 어떻게 된 것일까?

원자력 공학과 이원근교수는 이 질문에 웃음을 감추지 못하며 AGN-201에 대해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원자로는 순수 교육용 원자로이기 때문에 방사능은 거의 없을뿐더러 핵폐기물조차 나오지 않고 사고위험은 더더욱 없다"며 한마디로 근거없다며 일축해 버렸다. 또한 이교수는 "실습에서 학생들이 직접 원자로를 가동하여 원자로 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질량(임계질량)을 측정하기 위해 실험하는 것이고 '트리가마크 II, III'가 몇가지 실험만이 가능한 반면 AGN-201은 원자로 제어봉 반응도가 측정, 열중성자속 측정등 30여종의 실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자력공학과 한 학생은 어느 탤레비젼 광고에 비유해 "원자로 원뚜껑을 딴다. 실시!" "제어봉 나오자? 그 위에 냄비를 올려 놓는다. 냉각 숱는 라면 먹은후 디저트로 한다"라며 웃어 제꼈다.

(한승오 기자)

거짓된 약속의 땅, 한국

시론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호대책

정 해 광
〈노동정책연구소 정책실장〉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땅에 와 있지만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

95년 새해 벽두부터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네팔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명동성당 앞 농성은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이제 더이상 사소하고 우연적인 문제가 될 수 없음을 일깨워 주었다. 그러나 사실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그 이전부터 심각할 대로 심각해져 있는 상태였으며, 올해 초 명동성당 앞 농성은 곪은 상처가 마침내 터져 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기술연수생 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가 심각해지자 새로이 고안해낸 제도이다. 이 제도는 본래 외국인의 단기 기술연수를 위해 1991년 11월1일부터 만들어졌다. 그러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사실상 편법적인 '외국인력도입제도'로 활용되었다. 즉, 명목만 '기술연수생'이고, 실제로는 일반노동자로 '근로자'가 아니라 '연수생'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법적 보호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그만큼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야기이다. 올해 초에 농성을 한 네팔인들이 바로 이 제도의 악용으로 인권침해를 당한 '산업기술연수생'이다.

국내법의 노동3권 동등하게 보장돼야

'연수생'신분, 법적 보호 받을 수 없어

미국을 보면 떠오르는 몇가지 단상들

와 뚝같이 일하고 있는 '노동자'인데, 이들의 신분은 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급격하게 늘어나 현실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하여 크게 나누어 두가지 분석이 있다.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가 완전고용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노동력 과잉 국가에서 노동력 부족국가로 노동력이 이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우리나라가 이미 노동력 부족국가가 되었으므로 외국인 노동자가 급증한다고 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노동력의 국가간 이동은 상대적 과잉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자본주의의 세계적 운동이며 20세기 들어서는 국가 후원적 노동력 이동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외국인 노동자의 급증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노동력 유입국, 줄여 나아가서는 세계적 차원에서 노동자들을 분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파악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볼 때 후자의 견해가 훨씬 설득력이 있다. 우리나라는 인력의 절대량이 부족하기보다는 왜곡된 교육제도 및 노동시장구조 때문에 인력 배분이 잘못되어 특정 산업에는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외국인력이 국내 산업의 각 분야에 골고루 취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들이 주로 취업하는 기업은 한계기업으로서 노동자들에게 극도로 저임금을 주는 기업이다. 이들이 받고 있는 평균임금은 가장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50만원대 수준이다 그 중 산업기술연수생은 30만원 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심지어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20만원대를 받는 노동자들도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의 대부분이 간업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상여금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올해 초에 산업기술연수생들이 농성에 있었을때 김수환 추기경은 이들을 접견하고 '한국인으로서 부끄럽다'라고 말하였다. 많은 언론들도 이러한 논조를 실었다.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처참한 지경을 당하는 것은 한국 자본, 나아가서는 국제적인 자본의 운동속에서 그 원인을 규명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막연하게 한국인으로서 부끄럽다고 하는 것은 본뜻과는 달리 문제의 본질을 호도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부끄럽다는 말을 되풀이하기 이전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기준으로 동등하게 처우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 이들에게도 국내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동등하게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것만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때문에 생성되는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인 것이다.

기술의 現代 세계의 現代

벗어라!

봅입니다! 생명체들은 껍질을 벗고 꿈틀거리며 大氣를 호흡합니다.
그대는 어떠합니까?
혹 아직도 두터운 옷을 입고, 고정관념과 타성에 젖어 표류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지금 우리는 '世界化'라는 숙명아래 있습니다.
기업도 사회도 세계도 숨가쁜 환골탈태를 거듭하며
멀리 보고 높이 날 수 있는 정예의 '多能人'을 찾고 있습니다.

벗어납시다! 두꺼운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관성에서 벗어납시다.
생각보단 가까이 와 있는 21세기를 향해 하루하루 불꽃춤을 추어봅시다.

現代